

월간 범어교회보 Vol. 447

교회 설립 120주년 기념호

늘 푸른 숲

2026. 9

120년을 동행하신 **하나님의 발자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 됨’의 유산**
지금, 여기(Hic et Nunc) 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20년 **약사略史**, **순종**으로 걸어온 은혜의 발자취
‘기억과 순종’의 120년사를 준비하며





“교회의
주인이시며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

하나님께 영광



이지훈 담임목사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길목에서, 지난 12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변함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9)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처럼, 우리 교회가 걸어온 120년의 모든 역사와 발자취는 성도님들의 땀방울과 눈물의 기도 그리고 헌신이 모여서 영적인 열매로 결실을 맺은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 주일에 그러하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찬양제’와 또 ‘가을특방’을 통해 120년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서 써 내려가실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9월은 교회의 뜻깊은 120주년 기념과 더불어, 여름 방학 동안 잠시 숨을 고르던 교육과 훈련 사역이 다시 활발히 시작되는 소중한 전환점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편 119:105)라는 고백처럼, 다시 시작되는 교육과 훈련의 자리를 통해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 굳건히 무장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닮아가는 참된 제자로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배움과 훈련의 자리로 돌아오는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을 열며

구한말, 외세의 침입에 국운이 기울어져 풍전등화와 같을 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가정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
맞잡은 여성도 세 분의 기도의 손을 기억합니다.

6·25동란의 어려운 시기에 온 교회와 성도들이
피난 온 동포들과 함께 먹고 함께 지내며 버텨온
사랑과 섬김의 손을 기억합니다.

1997년 ‘IMF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온 성도들이 나라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한
현신의 손을 기억합니다.

이 모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겠다는
염원으로 이루어 온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설립 120주년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우리 범어교회가 저 캘리포니아 삼나무*처럼
크고 높이 뻗어 올라 주 오실 때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삼나무가 크고 높이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비록 뿌리가 1.5m 정도밖에 깊이 내려가지 않지만
뿌리가 서로 단단하게 얽혀, 서로 붙잡아 나무를 지탱하며
하나의 거대한 군락을 이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새로운 120년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금 중보기도의 손을 맞잡고, 사랑과 섬김의 손을 내밀며,
서로 현신의 손을 굳세게 붙잡고 나아갈 때,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의 목덜미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열심’이
우리 교회를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삼나무는 높이가 35층 건물 정도로 지름이 약 6m나 된다.

•박용수 집사(교회보팀)





2026 September | Vol. 447

CONTENTS

- 02 포토에세이
- 03 목양칼럼
- 04 9월을 열며 _ 박용수 집사
- 05 목차
- 06 120주년 특집 | 120년을 동행하신 하나님의 발자국 _ 장영일 원로목사
- 08 120주년 특집 |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 됨’의 유산 _ 이지훈 담임목사
- 10 120주년 특집 | ‘지금, 여기(Hic et Nunc)’ 계신 하나님 _ 김계태 은퇴장로,
김무경 권사, 장원석 집사, 윤정록 집사, 권아영 학생
- 14 내 영혼의 찬양 |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_ 장철웅 목사
- 16 나의 한 구절 | 김호규 장로
- 18 여름성경학교 | 믿음의 향해 _ 양하영 학생, 김지완 학생
- 19 여름성경학교 | “주는 그리스도시요...” _ 이서현 집사
- 20 여름수련회 |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 _ 정아인 학생
- 21 여름수련회 | 평안과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시간 _ 이서현 학생
- 22 공감의 장 | 120년을 품은 범어교회에서 피어난 나의 신앙 _ 정현숙 권사
- 24 120주년 특집 | 범어교회 120년 역사(略史), 순종으로 걸은 은혜의 발자취
- 26 120주년 특집 | ‘기억과 순종’의 120년사를 준비하며 _ 임병하 장로
- 27 책 소개 | 산책(冊), 우리 같이 걸을까요?
- 28 행사단신 | 8월의 범어
- 30 범어 ‘인(人)’의 얼굴 / 범어범어
- 31 범어동정 / 행사 안내

제447호 | 발행일 2026년 9월 6일

발행인 이지훈 | 편집인 권오중 | 2026년 교회 표어 “에벤에셀과 여호와 이레”

주소 42083 대구 수성구 청호로84길 71 | <http://pomo.net>

Tel. 053) 667 8800 | Fax. 053) 667 8888

120년을 동행하신 하나님의 발자국

범어교회가 120주년을 맞이한 것에 범어의 한 가족으로서 감사와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120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한결같이 동행하셨고, 보호하셨고,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120주년의 기념행사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제가 담임목사로 범어교회의 식구가 된 것은 89주년의 해(1995년)부터였습니다. 이듬해 90주년을 교회의 안정과 복음의 회복을 강조한 기념 예배로 마쳤습니다. 이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급성장하였고, 100주년을 앞둔 2003년부터 새로운 예배당 건축을 기도로 시작하여 6년 만인 2009년에 완공하며 <백 주년 기념예배당>에 입당하였습니다. 당시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온전한 헌신으로 전심전력하여 맺은 열매였습니다. 물론 건축 과정이 물 흐르듯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충성스러운 많은 성도들의 믿음의 순종으로 마침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제 120주년을 이지훈 담임목사님과 함께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역사의 계승은 지도자의 계승을 덮고 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2022년에

이미 예비하셨던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지난 4년간 활기차고 사랑이 넘치는 신앙공동체로 도약하게 된 것이 120주년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 하여 하나님의 동행으로 시나이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것처럼, 120주년은 그 정복 전쟁을 끝낸 후 정착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새 예배당으로 옮겨올 때, 구 예배



당에 온 교인들이 모여 “가나안 대행진”이란 이름으로 도보 거리 행진을 하여 새 예배당까지 도착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도착하여 새 예배당에 올라와 첫 금요기도회(2009. 6. 26)를 가졌는데, 그때의 황홀했던 감격은 잊을 수 없는 큰 은혜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 자기들을 위해 행하셨던 ‘하나님의 큰일’을 본 자들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서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약 백성의 신앙 전통을 떠나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다른 세대”(another generation)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고통의 암흑기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우를 범치 않도록 120주년을 신앙의 갱신과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기회로 승화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거센 바람이 있습니다. “교회 이후 시대(The Post-Church Era)”라고 부르며 전통적 신앙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탈교회주의입니다.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분야에서 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시대 변화에 자기도 모르게 많은 교인들이 감염되어 교회 내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배 불참, 헌신 불응, 성도의 교통에 무관심, 신앙의 선배와 지도자 무시 등이 현저히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주님이 장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에벤에셀! 여호와 이레!’를 굳게 붙잡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서 그분의 나라와 그 의를 세우는 “남은 자”(사 10:20)들이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며 기도합니다.

• 장영일 원로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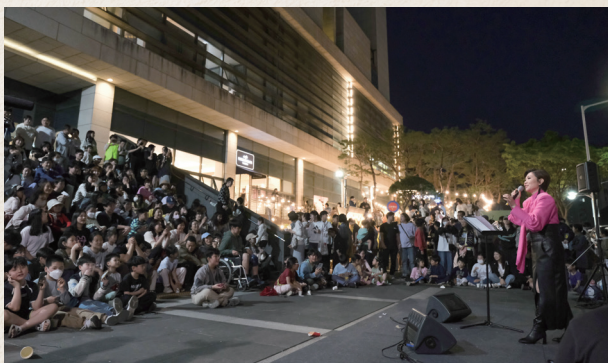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 됨’의 유산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이지훈 목사입니다. 범어교회의 120주년이라는 이 귀한 시간을 성도님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 행복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그분의 역사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3천 명의 회심자들이 생겨나며 그들의 모임이 초대교회로 시작된 이래

로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들은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자신만의 역할을 감당했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존재했습니다. 2천 년이 지난 지금은 초기에 세워진 교회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기에 그 역할을 이어받은 수많은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어교회의 120주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세 분의 여 성도님들을 통해 이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풍파와 시대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존재하게 지켜 주셨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범어교회가 아직 이곳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사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현재 이 교회에 속하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말씀과 만남과 상황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이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자로 이 교회에 부임할 때 마음에 품었던 한 단어는 ‘존중’이었습니다. 저는 120년의 긴 역사는 하나님께서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 오신 그분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동안 세워진 교회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 역사와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것으로 여기며 존중합니다. 제가 교회의 방향성을 너무 급격하게 바꾸려고 할 때 교회에 생겨날 저항과 그로 인한 혼란을 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고 꿈꾸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 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 됨’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나아가 세상에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범어교회의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120년의 역사 가운데 크게 분열되거나 반목했던 일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지요. 우리는 이 믿음의 유산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도 이 ‘하나 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 다투며 분열할 때 신앙의 회의감을 크게 느끼며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을 가집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하나 됨’의 유산을 포기하지 말아주시십시오. 저는 귀한 범어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 이지훈 담임목사



‘지금, 여기(Hic et Nunc)’ 계신 하나님

이 땅에 범어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120년을 함께 ‘동행’하시며, 앞으로도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실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여기(Hic et Nunc)’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긴 시간, 예수님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살아낸 성도들의 삶으로 드리는 향기로운 기쁨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한껏 흠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범어에서의 만남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

할렐루야! 모세의 나이인 설립 120주년의 축제 현장에 자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만남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의 수많은 복 중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만남의 복’이 참 귀합니다. 우리 자손과 후대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만남의 복이 있기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기도의 소원이라 생각합니다. 칠십을 바라보는 저의 인생에서 세 가지의 소중한 귀한 만남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이명희B 권사)와의 만남입니다. 결혼은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속에 있는 통치 수단입니다. 이국만리 타국에 거주했어도 우리는 이 신비한 섭리 속에서 만나야만 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소유한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입니다. 아내를 만남으로 지금의 제가 있게 되었고, 가정도 환난 가운데 올바르게 서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로 인하여 만나게 된 장모님(손순열 권사)입니다. 장모님의 신앙은 말 그대로 순진무구 그 자체였습니다. 죽을병에 걸린 사위를 대신해 자신을 먼저 데려가시라는 처절한 기도를 드리셨고, 늘 기도와 예배를 사모하시며 주머니를 털어 나누기에 바쁘셨던 장모님은 우리나라 어머니의 표상이셨습니다. 지난 8월 11일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지막은 아내와 장모님을 통해 만난 우리 범어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입니다. 40여 년 동안 믿음의 반석이 된 성도 여러분을 만난 것이 내 생애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끝없는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하셨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은퇴 후, 친정과도 같은 할렐루야 찬양대를 섬김이 그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향유옥합을 깨뜨려 지금도 그 이름이 회자되듯이, 또 120년이 흘러 우리들의 신앙의 척도가 후대들에게 회자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김계태 은퇴장로(1남전도회)

기억하고 추억하는 은혜, 범어교회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 손을 잡고 처음 가 본 범어교회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게 좋았던 나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정확히는 수련회 마지막 날 밤 기도회 시간이었다. 설교 말씀 후에, 해평 모래사장에서 열린 반별 기도회 시간에 목양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한 명씩 안아주면서 기도해 주셨고, 그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셨다.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범벅이었던 그 밤, 별빛 하나 없는 어두운 밤이었지만 알 수 없는 한 줄기 빛으로 나에게 비추신 날이었다. 그 여름날의 수련회가 내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 시절 참 많이 불렀던 찬양 중 하나가 ‘실로암’이었다.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생각하면 그 이듬해 여름수련회가 떠오른다. 수련회를 하루 남겨두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우리는 마지막 날 밤 급하게 철수해야 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 선생님들은 긴박한 위험에 대처하느라 분주하셨을 텐데, 우리는 위험하고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어두운 밤에 실로암 찬양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 친구들과 손을 맞잡고 걸어갔던 기억이 더 선명하게 남아 있다. 나중에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적절한 때에 대피하지 않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거라고 회고하셨지만, 우리에게서는 비를 맞으며 친구들과 찬양을 부르며 걸은 ‘위험했지만 위험하지 않았던’ 실로암의 추억이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방학 때마다 교회 친구들과 거의 매일 교회에서 만났던 일상과 찬양 발표회를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찬양 연습하고 긴장하며 발표회를 했던 기억이 난다. 친구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함께 자라왔기에, 신앙에 대한 고민이나 사춘기 때의 마음들도 자연스럽게 서로 나누며 보냈었다.

어느새 세월이 흘러, 우리 딸들이 내가 다녔던 주일학교를 거쳐 청년부로 섬기고 있다. 우



리 아이들은 훗날 범어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추억하게 될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아이들이 범어교회라는 좋은 울타리 안에서 친구들과 신앙을 나누며 교제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던 추억들이, 인생의 사막을 지날 때 나침반이 되어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한다.

• 김무경 권사(성사모)

범어에서 받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믿음의 여정

범어교회는 제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과 사랑을 나눈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받은 사랑을 교회 안에만 두지 않고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교회이기에, 저 역시 요양원 봉사와 장애인 목욕 봉사, 무료급식 섬김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동대구역 무료급식 봉사는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나눔을 드린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제가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와 작은 인사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 섬김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됨을 깨달았습니다.

3년 전 청년들과 시작하여 매주 월요일, 찬양과 배식으로 이웃을 섬기는 ‘갈배찬양팀(같이 배식하며 찬양으로 섬기다)’은 큰 기쁨과 은혜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안수집사회 회장과 모세대학 총무로 섬기며 우리의 직분은 낮아져 섬기는 자리임을 배웠고,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받은 사랑을 나눌 때 믿음이 성숙해짐을 배웠습니다. 범어교회가 예배 위에 든든히 서고, 소외된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저도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소망합니다.

• 장원석 집사(안수집사회 회장)

만일 나의 생애 범어교회가 없었다면...

내가 기억하는 범어교회에 대한 가장 오랜 장면은 구 예배당 지하 유치부실에서 예쁜 선생님과 함께 성경공부를 하던 모습이다. 이후, 범어선교원에 입학하여 영광스럽게도 제1회 졸업생이 되기도 하였다. 지금은 신실한 교회오빠(구경본 집사)를 만나 결혼을 하고 네 명의 자녀를 기르며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

97년 대학부 여름수련회에서 나는 돌아오지 못할 은혜의 강을 건너고 말았다. 그곳에서 만난 대학부 박윤만 목사님과의 신앙훈련은 지금까지도 믿음의 근간이 되고 있다. 삶을 공동체에 쏟아부으셨던 목사님의 헌신을

있을 수가 없다. 그 무렵 대학부 선교활동으로 남편은 ‘OM 러브유럽’을, 나는 ‘인도네시아 MK단기교사’로 섬기기도 했다. 그때의 경험은 퇴직 이후의 삶도 어린 영혼을 섬기는 일에 쓰임 받고 싶다는 열망으로 이어진다.

“만일 나의 생애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만일 나의 생애 범어교회가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지 돌아보게 된다. 120년 범어의 역사 속에 나의 삶도 녹아있음이 감사할 따름이다. 120년 동안 범어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더욱 귀히 사용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더욱 세워주시기를 기도한다.

• 윤정록 집사(바울청년회)



범어교회라는 요람에서 섬김의 자리로

안녕하세요. 저는 범어교회에서 나고 자란 고등부 권아영입니다. 모태신앙인 저에게 교회는 너무나 자연스런 공간이었고, 가족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시다 보니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손녀’로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게 참 좋았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가족들을 보고 자라며, 저 역시 고등부 찬양팀 인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부담감이 적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큰 위로와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크고 깊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인도자의 자리에서 비로소 의무감이 아닌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을 알게 되었고,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기쁨도 깨달았습니다. 부담이기는 했던 봉사가 기쁨이 되었고,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 다니며 먼저 봉사하는 가족을 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평만 가득했던 저에게 하나님은 감사를 가르쳐주셨고, 혼자자 편했던 저에게 누군가를 먼저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제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범어교회 공동체가 감사함으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 나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 권아영 학생(고등부)

임재의 문을 여는 찬양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기분 좋은 바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당한 온도와 은은한 내음을 머금은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 잊고 있던 행복한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제가 선선한 바람이 불 때 밖에 나가 있기를 좋아하는 것도 그런 자극이 좋아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그런 기분 좋은 바람 같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공기를 타고 전해질 때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던 시간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잘 모르겠어요” 모태신앙인 십 대들의 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아마 이런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믿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 믿음이 나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열일곱 살이 되기 전까지의 신앙생활이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공기처럼 하나님도 계신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 깊이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 불편한 일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이대로 살면 망할 것 같다’라는 두렵고 괴로운 마음이 계속해서 제 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선선한 바람이 불던 때였습니다. 그날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확실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5분 정도 기도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세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통회하고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게는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공기처럼 막연히 존재하시던 하나님이 제게 따스한 햇살을 머금은 공기처럼, 기분 좋은 선선한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달라지자, 제 마음과 삶도 함께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이 듣고 싶어졌습니다. 당시 제가 가진 MP3 플레이어에는 찬양이 한 곡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친구는 제 MP3 플레이어에 ‘다윗의 장막’의 찬양을 가득 넣어 주었습니다. 그 찬양들이 제 마음을 더욱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와 ‘주 날개 그

늘 아래’라는 곡은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표현해 주는 ‘곡조 있는 기도’였습니다. 이 찬양은 저에게 마치 ‘기도회 인도자’와 같았습니다. 찬양으로 먼저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면, 그 찬양을 따라 부르다가 어느새 간절한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찬양이 기도의 문을 열어 주었고, 기도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게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저는 울보로 지내야 했습니다. 골방에서 드러지는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끊어지지 않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부흥을 경험하던 때였습니다.

기분 좋은 바람에는 이유가 있듯이, 이 찬양을 들으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렸던 행복한 교제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싶을 때면, 골방에서 형광등 스위치를 켜듯 이 찬양을 틀어놓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제게 익숙한 ‘공기’가 바뀝니다. 흐트러져 있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래전 그 시간을 떠올리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제게 “임재의 문을 여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은밀한 곳에 영원히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도 앞으로도 제 마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하게 하소서.

주님의 품에 기대어 머물게 하소서.

주여,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부흥을 다시, 또다시 허락하옵소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공평하신 하나님) / 송명희 시인」



주님께서 나를 직접 지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으로
나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이 사라지며
창조주이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 임을 깨달으니
감격의 눈물이 조용히 흐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 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보잘 것 없는 저를
일꾼 삼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김호규 장로(하사모)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

올해 초등부에 올라와서 처음 참여하는 여름성경학교가 너무 설레고 기대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가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 중에는 ‘야이로의 죽은 딸 이야기’ 코너 활동 중에는 ‘바다 에이드 만들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위험에 처해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안전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시간을 통해 나의 믿음을 발견하고 많은 은혜를 받은 시간이 되어 좋았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열심히 준비해 주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 양하영 학생(3학년)

사실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성경학교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공과와 코너 활동들을 하면서 믿음의 항해는 여름성경학교의 주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믿음의 항해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지만, 진짜 기적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그런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되길 바라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주변 사람들의 절대 바뀌지 않을 것만 같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김지완 학생(4학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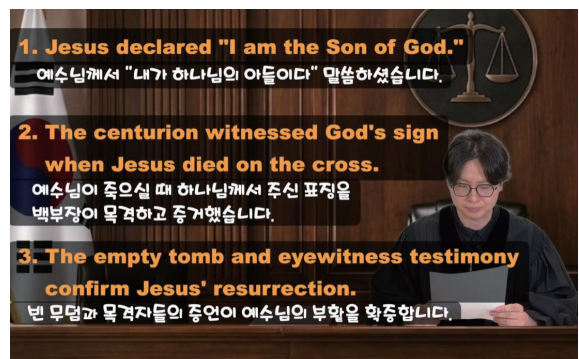
‘gogo9’은 2주 동안 아침 9시에 영상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는 영어예배부 온라인 여름성경학교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려웠던 때 선생님 두 분의 핸드폰 영상으로 시작해, 올해는 20명이 넘는 인원이 제작과 촬영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촬영, 컨셉, 포스터와 굿즈 디자인을 담당하였습니다.

올해 gogo9의 주제는 “Jesus is...”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이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사전 조사로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어 보았습니다. 답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얼굴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두 손을 잡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포스터와 굿즈에 담았습니다. 이 그림들은 편집자 집사님의 손을 거쳐 영상에도 담기게 되었습니다.



첫 에피소드의 포문을 열어주신 담임목사님, 교사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묵상하도록 이끌어 주신 신영근 목사님, 강의, 뉴스,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주신 영어 예배부와 청년부 선생님들, 기획과 촬영, 편집으로 섬겨주신 공호련 집사님, 황보선미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주 후, 아이들에게 다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친구들의 답을 살피며 주저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신 있게 “Jesus is the Messiah, Son of God!”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며 베드로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었듯, 우리가 정성껏 만든 말씀 콘텐츠를 아이들의 고백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음을 느꼈습니다. gogo9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제자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

2박 3일 동안 ‘SEND ME,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중등부 수련회는 내게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시간이었다. 솔직히 수련회를 가기 전에는 ‘그냥 또 친구들이랑 놀다 와야지’라는 가벼운 마음이 컸다. 제자반을 통하여 성경 공부도 하고, ‘리딩 지저스’도 따라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은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도 응답하시는지는 솔직히 확신이 부족했었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는 말씀과 기도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너무 알차고 즐거웠다. 시원하게 물놀이를 하며 수영하던 시간은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를 위해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해 주신 청년부 선생님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장난도 치고 고민도 나누면서 든든한 친구가 생긴 기분이었다. 그리고 부장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과도 평소와 다르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수련회의 가장 좋았던 시간은 2일째 날 ‘저녁 집회시간’이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 짧게 느껴져서 아쉬울 정도로 기도에도 집중하게 되었다. 이후에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무거운 짐들과 고민들을 친구들과 찬양하며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내 손을 꼭 잡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은 귀한 시간이었다.



최근 학교 공부나 학교생활, 친구 관계, 진로 걱정 때문에 마음이 복잡할 때가 많았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을 얻었다. 수련회는 끝났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제자반 활동도 더 열심히 하고, 일상에서도 매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고 싶다. 이번 수련회 때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시간을 만들어 주신 청년부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하다.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내 모든 영광과 기도를 올려드린다.

• 정아인 학생(중등부)

평안과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시간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이번 수련회도 매년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부와 입시 제도 속에서 조금씩 지쳐 있었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구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저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힘들 때를 제외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는 늘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몰라서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기보다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저녁 집회 시간에 강사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가 그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해도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늘 기도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는 많은 말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그저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세요." 그 한마디를 반복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 곁에 와 계시다는 평안과 위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거창한 경험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수련회에서 함께했던 시간들도 저에게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조원들과 서로의 은혜를 나누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게임을 통해 여러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웃으며 예배드린 이 시간은 제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찾지만 해도 가까이 오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며 생활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어렵게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저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 이서현 학생(고등부)



120년을 품은 범어교회에서 피어난 나의 신앙

먼저 범어교회 설립 1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일하며 부산양정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현숙입니다. 범어교회 유치부부터 대학부까지 신앙훈련을 받으며 자랐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9세에 대구를 떠난 지도 어느덧 20년이 훌쩍 흘렀네요.



범어교회는 어린 시절 늘 저의 놀이터였습니다. 구 교회가 집에서 3분 거리에 있어 친구들과 교회에 모여 노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가대석에서 떠들다가 전도사님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꾸중을 듣기도 하고, 교회 담벼락을 넘어가다 옷이 찢어지던 기억도 있습니다. 초등 4~5학년쯤, 교회 친구들과 버스 타고 ‘찬미 예수 콘서트’를 다니기 시작했고 중고등부 때는 임원임사로 열심히 봉사하였으며 좋은 선생님들께 신앙훈련을 받는 값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들이 지금은 모두 은퇴장로님이 되신 것을 보니 세월의 무심함에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중학교 3학년 전도왕 1등 수상 모습(1990년)

이후 교회에 잠시 어려움이 있었지만, 장영일 목사님께서 오시면서 깊이 있는 말씀 선포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고, 대학부 지도 목사님이셨던 박윤만 목사님께 신앙훈련을 받으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청년의 시절에 본받고 싶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고, 함께 교제하며 섬겼던 대학부는 제게 은혜의 강가였습니다. 주 전하기 선교중창단 활동을 하며 누렸던 은혜도 참 깊었습니다.



고등부 엘로힘 찬양팀 시절(노란색 상의)

그러던 어느 날 국문학도인 제게 사법시험에 대한 비전이 생겼지만, 그 어려운 광야 같은 길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범어교회 대학부를 떠나는 것이 싫었고, 공동체 안에서 계속 훈련받고 리더로 섬기며 지체들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갈등하며 기도했지만, 답을 알 수 없어 고민하다가

“목사님, 저 고시 공부할까요?”라며, 지금 생각해 보면 난처했을 질문을 하며 대학부 목사님께 매달렸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현숙아, 하나님은 네가 어떤 일을 하는지보다, 네 마음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답을 주셨지만, 아둔한 저는 목사님께 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달라고 졸라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음...네가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법조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문현답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왔고 그날 이후, 저는 비전에 대해 일말의 의심도 없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림동에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 기도원에서 방언 은사를 받고 방언 통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응답도 들었습니다. 확신으로 시작한 고시 생활이었지만, 정말 광야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범어교회에서 훈련받았던 신앙의 힘으로 광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사법시험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게 되었고 현재 22년째 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범어교회에서의 신앙훈련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 삶은 다른 모습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범어교회는 제게 늘 그립고 감사한 곳입니다. 얼마 전 범어교회 고등부 초청으로 특강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고등부 시절 열심히 찬양하며 섬겼던 엘로힘 찬양팀이 여전해서 무척 감격스러웠고 마치 고등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감동에 빠졌습니다. 특강 후 가진 깜짝 QnA 시간에 고등부 친구들의 깊이 있는 질문에 놀랐고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범어교회가 나날이 부흥하고 있어 참으로 좋습니다. 제 사랑하는 모 교회가 하나님께 더욱 기쁨이 되고 영광 올려드리는 곳이기를 멀리서 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주일학교 후배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은 믿음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범어교회 설립 120주년을 가슴 깊이 축하드리며,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기도와 응원으로 사랑하는 범어교회와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현숙 권사(대학부 21대)



주전하기 하계봉사(1995년) 가장 뒷줄 우측에서 3번째



고등부 신앙특강(2026년 8월 23일)

범어교회 120년 약사(略史)

순종으로 걸어온 은혜의 발자취

설립 120주년을 맞이하며 돌아보는 120년 약사(略史)에는 시대마다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붙드셨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지난 백스무 해 우리 교회가 걸어온 신앙의 발자취를 간략히 소개한다.

① 교회의 설립과 고난 속의 성장 (1906~1945)

우리 교회는 1903년 박순이·배양이·조달숙 세 분의 여성도가 당시, 경산 사월교회에서 복음을 받고 대구 남성정교회(현 대구제일교회)에 출석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분들은 1905년 정일수(2대 장로)의 집을 기도실로 삼아 모임을 이어가다가, 이듬해 초가 6칸을 마련하여 1906년 9월 9일 마침내 범어교회를 설립하였다. 일제의 억압이라는 엄혹한 시대 속에서도 성도들은 예배 처소를 지켰고, 교회는 나날이 성장하며 뿌리를 내려갔다.



② 민족의 해방과 교회의 성장 (1945~1969)

우리 민족에게 찾아온 해방의 기쁨도 잠시, 정치적 혼란은 6·25 전쟁으로, 신앙적 갈등은 교계의 분열로 이어졌다. 시련과 고난 중에서 교회는 오히려 더욱 성장하였다. 이 시기 양재엽 목사를 비롯한 여러 목회자와 정운한 장로 등이 충성스럽게 교회를 받들었고, 그 섬김은 대동교회와 수성교회의 분립이라는 열매로 나타났으며 예배당 증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내·외적 성장은 설명도 목사가 제4대 담임목사로 부임(1964~1986)하며 더욱 가속화되었고, 마침내 1969년 새 예배당(범어동 805-4)을 헌당하기에 이르렀다.

③ 발전과 시련 속의 성장 (1969~1994)

한국교회에 불어온 새로운 영적 부흥의 물결 속에서 우리 교회도 꾸준히 성장하여, 1976년에는 50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부흥하였다. 정대교회(가창)와 삼리교회(논공), 울곡교회(합천)를 잇달아 개척하여 복음 전파자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고, 예배당 증축과 교육관 준공, 선교원 개원이 이어졌다. 1982년에는 선교회를 조직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는 등 세계 선교의 첫걸음도 내디뎠다. 그러나

이 기간 교회는 설명도 목사의 갑작스러운 소천(1986)이라는 아픔을 겪었고, 뒤이은 김성무 목사(제5대 담임목사, 1986~1994)의 사임으로 다시 한번 역경의 시간을 지나야 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

④ 백 년을 넘어, 땅 끝을 향한 소망 (1995~2016)

1995년 장영일 목사가 제6대 담임목사로 청빙되어 새로운 부흥의 계기를 맞았다. 선교의 지평을 확대하여 인도, 중국, 아프리카, 북한까지 복음을 전하였고, 2005년부터는 제자훈련을 통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힘썼다. 2003년에는 현재의 예배당 터 1만여 평을 마련하여 〈백 주년 기념 새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였다. ‘백 년을 넘어 이제 땅 끝을 바라보자’라는 비전으로 2009년 〈가나안 대행진〉에 이어 새 예배당을 완공·입당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 사회를 복음화하기 위해 힘썼다. 특히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6가지 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성장을 이어갔다.

⑤ 다시 본질로, 순종의 10년 (2017~2026)

110주년을 지나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새롭게 다지던 중, 2020년 미증유의 코로나19 팬데믹을 만나 예배당 문을 닫는 위기에 처했으나, 성도들의 헌신으로 예배 공동체를 지켜내었다. 이후, 담임목사의 이·취임이라는 리더십 교체도 신중하게 이행하여 이지훈 목사가 제7대 담임목사로 위임되었고, 새로운 목회 체제 아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교회의 본질을 숙고하였다. 이웃과 지역 사회를 섬기며 인근 교회들과의 협력과 동행에도 마음을 쏟았다. 120주년을 맞아 주차장 신축으로 지경을 넓히는 한편, 여러 기념사업을 통해 지난 발자취를 되새기는 일에도 힘을 모았다. 시련과 성장이 교차한 이 10년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에벤에셀과 여호와아레’의 은혜로 고백한다.

은혜로 채워진 120년, 이제 그 사랑의 무게로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을 세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의 걸음을 계속하고자 한다. • 12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기억과 순종’의 120년사를 준비하며

120년사 편찬의 위임을 맡고서, 함께 애써주신 10인의 편집위원들과 여러 달 동안 지난 10년(2017~2026)의 기록을 어루만지는 일로 새벽을 열었습니다. 110년사에 이어 이번 120년사는 단순히 시간을 잇는 연장이 아니라, 지나온 10년을 새롭게 해석하고 오늘의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책은 크게 세 편의 주제로 엮었습니다. 먼저 매해의 표어와 그 표어를 가장 깊이 담아낸 설교문 11편을 실어, ‘그해 무엇이 있었는가’보다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되짚었습니다. 이어 예루살렘·나사렛·갈릴리·사마리아·안디옥·로마, 여섯 개의 꿈으로 매해의 사역을 조명하며 교회의 역사가 사건이 아니라 소명과 사명의 연속임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기도, 훈련, 구제, 선교, 친교, 팬데믹, 리더십, 120년 사업 등 열 개의 키워드로 지난 10년을 다시 엮어 사진과 그래픽을 함께 실어 더 생생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세 편의 주제에 이어, 10년 동안 섬기신 분들의 이름과 각종 데이터를 ‘엔딩크레딧’의 형식으로 실어 책을 마감했습니다.

사진 한 장을 고르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화려한 컬러 대신 흑백 사진으로 시대를 열려 했으나, 편집위원들과 가출력본을 함께 살펴보며 흑백이 오히려 컬러가 지닌 역동성을 눌러버린다는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컬러 사진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정선된 글과 어우러져 역사적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렸습니다.

작업 중에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우리 각자의 기억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 아래는 언제나 순종의 흐름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팬데믹의 시련도, 리더십 교체의 긴장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응답해 온 순종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이 책이 발간되면, 지나온 10년을 그리워하는 회고에 머물지 않고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 내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 기록을 딛고 새로운 순종의 길을 열어가기를 바라면서, 발간될 그날까지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임병하 장로(120년사 편찬 분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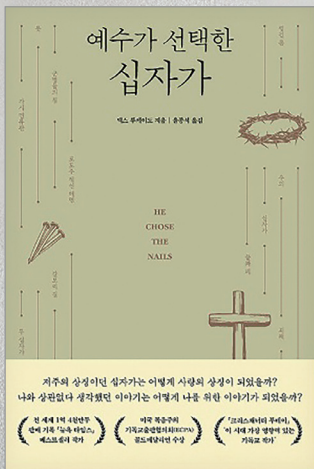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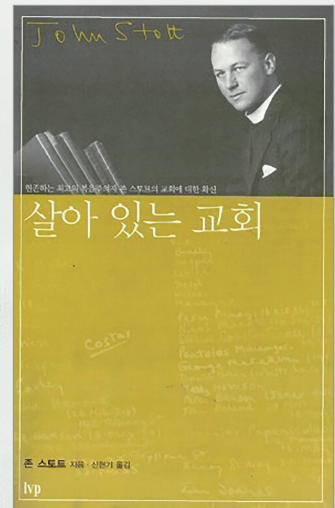
우리 같이 걸을까요?

산책(冊)

살아있는 교회 (존 스토틀, IVP, 2025)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는 사랑의 질을 통해 당신을 계시 하신다.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한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희석하기도 하고 과감히 생략하기도 해왔기 때문이 아닐까.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를 늘 질문해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본질인 사랑을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도록 부름을 받았다.

“모든 진정한 선교는 성육신적인 선교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 문화적 현실로 들어가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그들의 사상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그 소외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라는 부르심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기독교적 신념과 가치와 기준을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 본문 中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맥스 루케이도, 알에이치코리아, 2021)

예수님은 나처럼 되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처형을 선택하신 이유가 나를 사랑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달라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기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산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얼마만큼 낮아질 수 있는가에 있다. 낮아질 수 있는 그만큼이 내 사랑의 크기다.

“당신도 그런 적이 있는가? 누군가에게 침을 뱉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험담한 일이 있는가? 비방한 일은? 분노로 손을 쳐들거나 교만한게 눈을 굴린 일은 없는가? 누군가의 백미러에 하이빔을 쏘아댄 일은 없는가? 내 기분 좋아지려고 남의 기분을 비참하게 만든 적은 없는가? 그것이 바로 군병들이 예수님께 한 일이다. 당신과 내가 똑같은 일을 할 때, 우리도 예수님께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본문 中



7·8월의 범어

이 외에도 많은 행사가 지난 달에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http://pomo.net>



고등부 여름수련회가 7월 26일(주일)~29일(수)에 평산아카데미에서 부산 수영로교회 이현우 목사와 고등부 김태완 목사를 강사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겔 16:6)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중등부 여름수련회가 7월 28일(화)~30일(목)에 경주 성호리조트에서 최상용 목사를 강사로 “Send Me! 나를 보내소서”(시 116:12)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청년장학위원회 주관으로 2일(주일) 오후예배 시간에 “하반기 자랑스러운 범어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총 74명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장학금을 흘려보냈습니다.



세계선교위원회 주관으로 26년 해의 여름 단기선교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팀에는 중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참여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몽골 : 7월 26일(주일)~31일(금)

캄보디아 : 8월 3일(월)~8일(토)

인도네시아 : 8월 3일(월)~8일(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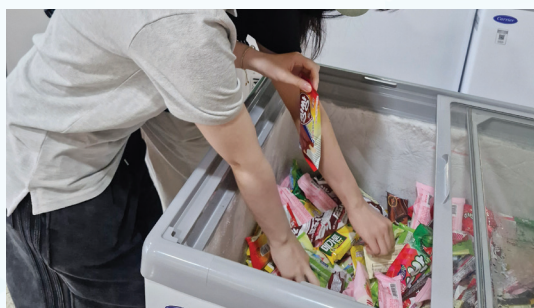
3일(월)~16일(주일)에 영어예배부 여름캠프 “gogo9”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gogo9”은 “JESUS is...”(마 16:13~20)라는 주제로 10개의 에피소드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각자의 예수님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벽이슬 청년부가 17일(월)~22일(토)에 제주도 예인교회와 제이홈처치를 중심으로 국내 전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2일(토) 오후 1시, 대구 수성교회 주일학교연합회 성경 암송 쓰기 대회 및 울동 경연대회가 예루살렘채플에서 있었습니다.



23일(주일)과 30일(주일)에 교회 설립 120주년 기념 행사 이벤트로 전교인을 대상으로 1인당 1개의 아이스크림을 나누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29일(토) 오전 10시부터 성주 소망의 트랙에서 디모데청년회 여름수련회가 열렸습니다.

범어‘인(人)’의 얼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들

성찬을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의 '나눔'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는 수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나눔과 참여를 통한 '예수님을 옷 입는 공동체'임을 성찬의 매 순간 고백 드리기를 원합니다.



범어범어(泛魚凡語)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역의 끝, 이 세상 삶의 끝, 자신의 끝에 이르셨다. 하지만 그 끝에서 부활이 시작된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매일, 완전히 죽는 삶. 주님, 나의 끝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부활의 삶이길 기도합니다.”

독서모임 중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 안에 있음같이 주의 영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므로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주의 뜻이 되는 은혜 맛보게 하옵소서.”

리딩지저스 묵상나눔 중

“누구도 알지 못하는 볼품없는 가장 작은 자 한 명의 겸손한 순종으로도 충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그 한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주일 설교 중

“하나님은 죽음이 단절과 끝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아래 인생의 한부분으로 주셨습니다. 죽음은 영원을 꿈꾸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소년부 설교 중

“예수의 교회란 삶의 가치관이 예수님을 따라 변화되고,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 모여 선교하며 이웃을 섬기는, 환대와 평화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범어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설교 중

범어동정(泛魚動靜)

한 달 동안 범어인의 상황과 이동

■ 처음 나온 아기



손이준 (손승수, 이 선)



양서윤 (양현성, 이다겸)

■ 출산

- 김한별 성도(김은형 성도) 득녀 : 7월 28일(화)
- 이효정 성도(김진현A 성도) 득남 : 7월 30일(목)
- 박연정 성도(이동훈 성도) 득남 : 8월 19일(수)

■ 출간 : 강민영 집사 <스스로 정리하는 아이>

- 이전 : 권택민 집사(김미희 집사) :
'가파폰' 신매로 91 상가 112동 105호

■ 결혼

- 이영한A 은퇴안수집사(허태분 은퇴권사)의 장녀 이수진 양 : 8월 22일(토) 엘파소하우스웨딩홀
- 이명호B 안수집사(배정숙 권사)의 장녀 이해은 양 : 8월 29일(토) 호텔라온제나 컨벤션홀
- 이은화 권사의 차남 김준엽 군과 권민경 양 : 8월 29일(토) 퀸벨호텔 프라임홀

9월 교회 행사 안내

- 4일(금) : 수선대후 & 온세대기도회
- 6일(주일) : 교회 설립 120주년 기념예배 찬양제 및 홈커밍데이(오후)
- 7일(월)~11일(금) : 가을특밤(김병삼 목사, 손경민 목사, 이용규 선교사)
- 18일(금)~20일(주일) : 청년위크(이정규 목사, 전은주 찬양사역자, 임형규 목사, 우미헬 찬양사역자)
- 20일(주일) : 남여전도회 주관예배(오후)
- 25일(금) : 추석당일 금요일예배는 가정예배로 대체
- 27일(주일) : 정기당회(오후)

9월 주일학교 행사 안내

- 4일(금) : 수선대후 & 온세대기도회
- 5일(토) :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제자훈련 개강
- 6일(주일) : 중등부 개강찬양 부흥회
- 7일(월)~11일(금) : 주교위 특밤 전출 캠페인
- 13일(주일) : 영아부 반별 찬양 축제, 유년부 도시락Day
- 20일(주일) : 소년부 찬양 축제주일, 중등부 신앙특강(역사/세계관)
- 27일(주일) :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명절테마예배, 영어예배부 수성못 버스킹

편집장 | 이영선C

부편집장 | 신규식, 여경진

편집위원 | 김동영, 김성애B, 김현성, 서정주

손명진, 이미경C, 이상진, 이창권

조성희A, 허윤정, 박용수

사진 | 미디어위원회

디자인 | design Jabez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범어교회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범어교회보 | 1986. 5. 25 창간



2026 가을특밤



예배와 삶과 기도와 사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3장 19절



9월 7일(월)~11일(금)

저녁 7:30~9:30

예루살렘 채플(2층)



김병삼 목사

만나교회 담임목사
9월 7일(월)~8일(화)



손경민 목사

〈은혜〉작사, 작곡
9월 9일(수)



이용규 선교사

〈내려놓음〉저자
9월 10일(목)~11일(금)